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재 혁 요셉 (청년부) 강 인 석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김 미 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벌 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 알 림

- 07월 08일부터 목요일 10시 레지오 미사가 재개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7월 4일)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07월 03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7월 05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일로 신부님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6/27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07/04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결식아동 모집/후원 *

• 무료 점심 나눔 •

- 장 소 : 가리봉동
- 일 시 : 매주 토요일 / 11:00~14:00
- 방학시 : 매일 / 11:00~14:00
- 결식아동 추천 받습니다.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가톨릭이란 뜻은?

- Catholic 이란 말은 전체성,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
-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의미
- 중국에서 가톨릭을 천주교라 번역
- 조선 시대 때 한자로 번역된 천주교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가톨릭과 천주교 혼용

● 다음 주일(07/0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6월09일 ~ 06월15일)

• 교 무 금		4,671,000 원
• 주일헌금		4,380,650 원
• 단식모금 2차 헌금		811,000 원
• 시설헌금	강미자100만원 영인숙 3만원 김순엽 30만원	김숙자 5만원 황금옥10만원 송영순10만원
• 감사헌금	전채홍100만원 이형순 5만원 김종순 5만원 현보영 3만원	김득수10만원 설광옥10만원 5구역 15만원 김순임10만원 민경희 5만원 김득수10만원 노순덕10만원 빙대인 2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6/27	권태희	김영균	도현만
07/04	구민서	심재순	최상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19:00
06/27	박승환	오광운	장인홍	최승일
07/04	박용환	이성일	최상남	박형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2장

길 위의 이방인

56. 앞 장(제1장)에서 제가 언급한 모든 것이 현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한가운데서 빛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하기에 앞서, 저는 이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에 제2장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회칙은 종파를 뛰어넘어 선의의 모든 이에게 전해지지만 다음의 비유는 우리 각자가 자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